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FXStreet: 10월 미국 S&P PMI 50으로 상승... 서비스는 50.9
- NYT: 이코노미스트들이 3년간 미 경제 잘못 예측했다
- Bloomberg: 적자 두배 증가로 10년물 국채 5% 도달

#### [미국 금융]

- WSJ: 16만에 최고치 국채 수익률이 미 경제 둔화시킬 수 있다
- CNN Business: 비트코인, 3만5천불 돌파

#### [자동차 파업]

- WSJ: UAW 파업, 미국 내 가장 큰 스텔란티스 공장에 타격

#### [에너지]

- CNBC: IEA, "2030년까지 오일, 석탄, 가스 글로벌 수요 상승"

#### [주택]

- WSJ: 건물주들, 빅데이터 사용해 임대료 결정한다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GM, 양호한 3분기 실적에도 전기차 생산 목표 낮추다
- WSJ: 3M, 수익 개선되고 수익 전망 긍정적으로 평가
- Bloomberg: 코카콜라, 중국에서 부진에도 사업 전망 높다
- CNBC: 아마존, 원격 동물 진료 서비스 계획 중... 월마트와 경쟁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FXStreet: US S&P Global Manufacturing PMI edges higher to 50 in October, Services PMI improves to 50.9**

#### **10월 미국 S&P PMI 50으로 상승... 서비스는 50.9**

- 미국 민간 부문 경제 활동이 10월초에 완만하게 확장하고 있다. S&P 미국 구매관리자 종합지수가 9월에 50.2에서 51로 상승했다.
- 제조업 활동 PMI는 동월 대비 49.8에서 50으로, 그리고 서비스 지수는 50.1에서 50.9로 상승했다. 이 두개 지수 모두 예상치를 초과했다. 50이 넘으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축소를 말한다.
- 이 기관은 이번 개선된 상황으로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대한 희망으로 고무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FXStreet 기사

#### **NYT: New Normal or No Normal? How Economists Got It Wrong for 3 Years.**

## 이코노미스트들이 3년간 미 경제 잘못 예측했다

- 이코노미스트들은 처음에는 인플레이션을 과소 평가했고, 그 다음에는 소비자들과 노동 시장을 과소 평가했다.
-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은 성장 위축 없이 인플레가 충분히 둔화될 수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인플레는 9월에 이미 9%로 최고치에 달했지만 이제는 3.7%로 둔화되었다.
- 연준 관리들은 장기적으로 금리가 2.5%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는 인플레가 약화되고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그런데 금리 상승세가 꺾이면서 경제가 급격히 둔화되거나 인플레가 고착화 되어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
- 약 60여명의 이코노미스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올해말보다 2024년말에 금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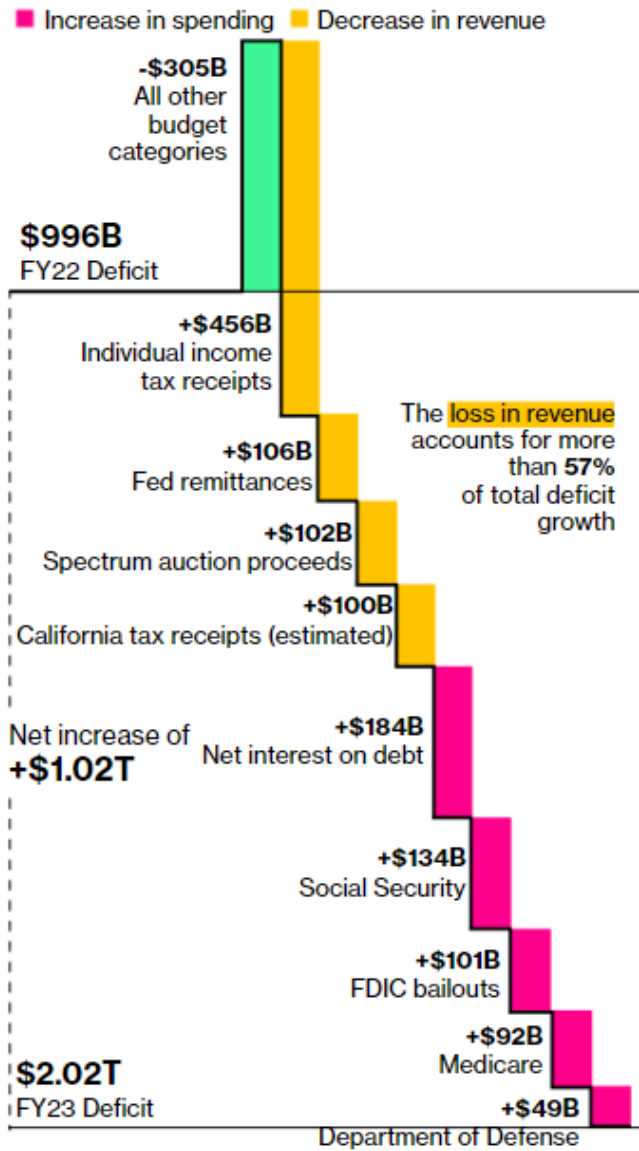
NYT 기사

## Bloomberg: Deficit Doubling as US Economy Grows Shows Why Yields Are at 5%

### 연방 재정 적자 두배 증가로 10년물 국채 5% 도달

- 요지: 재정 적자 확대는 세입 감소 때문이고 부채 상황, 사회보장및 메디케어에 대한 지출이 늘었다.
- 올해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 상황 가운데 연방정부의 적자는 약 2배 증가하여 양당 갈등 등 당파적인 재정 갈등을 보였다.
- 연방정부는 대법원이 무산시킨 바이든 주도의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여파 제거를 위해 조정한 후에 올해 9월 회계연도에 적자가 2조 2천억달러다. 이 적자는 작년보다 1조 2천억달러 더 큰 상황이다.
- 이는 미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글로벌 금융 위기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최고치를 기록한 이유다. 즉 연방정부는 세입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부채를 발생해야 하는 이유라 할수 있다. 어제 월요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5%를 넘어섰다.

Change in adjusted federal deficit from FY2022 to FY2023



Source: Department of the Treasury

Note: Numbers are adjusted to remove the accounting impact of President Biden's student loan forgiveness program.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How the Highest Bond Yields in 16 Years Could Chill the Hot U.S. Economy

16만에 최고치 국채 수익률이 미 경제 둔화시킬 수 있다

- 미국 경제 둔화를 위협하는 요인중에 금리 급등도 추가된 상황이다.
- 최근 10년물 국채 금리가 몇주간 급등한 후에 어제 월요일 5%에 도달했다.
- 이는 많은 차입 비중이 하나이며 다른 정부 부채들, 모기지, 신용카드, 자동차 구매외 비즈니스 용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상당히 회복력 있는 미국 경제를 둔화시킬 수 있다.

- 금리가 상승하면 연방 예상 적자와 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연방 정부의 차입 비용이 올라간다.

### U.S. 10-Year Treasury Note



Source: Tullett Prebon

WSJ 기사

### CNN Business: Why bitcoin is surging again 비트코인, 3만5천불 돌파

- 비트코인이 지난해 5월 이래 처음으로 3만5천불을 돌파했다. 지난 5일간에도 20%가 상승했다.
- 이같은 현상은 암호화폐도 위험성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펀드를 구매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 비트코인에 대한 세계 최대 자산 관리사인 블랙록의 상장지수펀드가 나스닥에서 운영하는 주식 및 ETF 청산소인 예탁결제원(Depository Trust and Clearing Corp)이 운영하는 목록에 등장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CNN Business 기사

### [자동차 파업]

### WSJ: UAW Strike Expands to Stellantis's Largest U.S. Factory UAW 파업, 미국 내 가장 큰 스텔란티스 공장에 타격

- 어제 월요일 전미 자동차노동조합이 디트로이트 자동차 기업들에 대해 픽업트럭 공장 가동을 중단하며 파업을 계속해서 확장했다. 이번 파업에 영향을 받은 곳은 스텔란티스의 미국 내 가장 큰 공장으로 밝혀졌다.
- 디트로이트 교외의 미시간주 Sterling Heights에 위치한 이 공장은 6천 8백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자동차 기업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차량 중 하나인 픽업트럭을 생산한다.
- 이번 파업으로 인해 포드와 GM을 포함한 디트로이트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총파업 노조원 수는 4만여명으로 늘었다고 UAW 관계자는 밝혔다.

WSJ 기사

## [에너지]

### CNBC: Global demand for oil, coal and gas set to peak by 2030, energy agency IEA says

#### IEA, “2030년까지 오일, 석탄, 가스 글로벌 수요 상승”

- 청정 에너지 기술의 놀라운 향상이 큰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전세계의 전력 공급 방식이 혁신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 그러나 2030년까지 오일, 석탄,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최고점에 달할 것을 보이는 가운데 지구 온난화를 섭씨 1.5도로 제한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밝혔다.
- IEA는 이번 보고서와 함께 성명을 발표했는데 “2030년에 전 세계 도로에 10배 가량 많은 전기차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CNBC 기사

## [주택]

### WSJ: Thanks to Big Data, Landlords Know How to Squeeze the Most Out of Renters

#### 건물주들, 빅데이터 사용해 임대료 결정한다

- 많은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얼마나 받을지 알려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임대료를 결정하고 있다.
- 이 알고리즘 가격 책정 시스템은 임대시장에 존재하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한다. 그리고서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시에 얼마나 임대료를 인상해야 하는지 혹은 임차인이 나간 부동산의 임대료를 얼마나 책정해야 할지 채알려준다.
- 심지어, 이 시스템은 계산을 통해 공실률이 높아지더라도,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이미 미국 전역에 적어도 수십명의 건물주들이 이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 알고리즘 가격 책정 시스템을 발명한 두 기업은 RealPage와 Yardi Systems이며, 이들 기업은 미국 최대 아파트 소유자들 간의 담합을 조장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WSJ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GM Posts Strong Third-Quarter Profit, Scraps EV Target** **GM, 양호한 3분기 실적에도 전기차 생산 목표 낮추다**

- GM이 내년 중반까지 목표로 했던 전기차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전기차 수요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이 기업은 양호한 3분기 수익에도 불구하고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지속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데, 9월 중순에 시작된 파업은 현재까지 GM에 2억 달러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추산된다.
- GM의 7월부터 9월까지의 순수익은 7% 감소해 대략 31억 달러로 집계됐다. 파업의 영향과 차량 수리 보증 비용 증가가 수입 감소의 원인으로 보인다.
- 이 기업의 CFO인 Paul Jacobson는 전기차 생산량 계획 변경에 대해 전기차 시장의 수요 감소를 원인으로 언급했다.

WSJ 기사

#### **WSJ: 3M Says Business Is Improving, Boosts Earnings Guidance** **3M, 수익 개선되고 수익 전망 긍정적으로 평가**

- 3M이 3분기 예상보다 뛰어난 실적을 거두면서, 앞으로의 수익 전망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관계자는 지난 실적 향상과 비용 통제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 이 기업은 현재 연말 주당 순이익이 8.95 달러에서 9.15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이전 전망치인 8.60 달러에서 9.10달러보다는 오른 것이다.
- 3M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줄이고, 가장 실적이 좋은 헬스케어 부문을 자사로부터 기업분할 하는 등의 기업 구조 조정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3M이 겪고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해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노력 또한 병행하고 있다.

## Stock-price performance

3M

\$91



Source: FactSet

WSJ 기사

### Bloomberg: Coca-Cola Raises Outlook as Shoppers Absorb Price Hikes 코카콜라, 중국에서 부진에도 사업 전망 높다

- 코카콜라가 물가 상승과 중국에서 부진을 겪고 있음에도, 올해 연간 실적을 언급하며 내년 전망을 상향했다.
- 코카콜라의 CFO인 John Murphy는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사업 부문이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사업은 부진하다고 덧붙였다.
- 이 기업은 현재 2023년 연간 유기적 매출 증가율(organic revenue growth)을 10%에서 11% 사이로, 조정 이윤 성장률을 7%에서 8% 사이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2022년에 코카콜라는 올해의 유기적 매출 증가율을 8%에서 9% 사이로, 조정 이윤 성장률은 5%에서 6% 사이로 전망했었다.

Bloomberg 기사

### CNBC: Amazon considers offering veterinary telehealth as it looks to compete with Walmart 아마존, 원격 동물 진료 서비스 계획 중...월마트와 경쟁

- 아마존이 월마트와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원격 동물 진료 서비스 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정통한 관계자가 CNBC에 언급했다.

- 월마트는 이미 올해 초에 월마트 플러스(Walmart+) 구독자들에게 무료로 원격 동물 진료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 미국 반려동물 시장은 2030년까지 약 2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며, 그 중 반려 동물 건강 산업이 성장 핵심으로 보인다.

CNBC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 10년물 국채 금리, 6% 돌파도 불가능하지 않아"**

**"기준금리 인상과 비슷한 효과...연준은 즉각 개입 없이 관망"**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23일(이하 현지시간) 한때 심리적 기준선인 연 5.0%를 다시 넘자 6% 돌파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브랜디와인글로벌의 트레이스 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높은 재정 지출 경향 때문에 금리는 더 오랫동안, 더 높게 유지될 것"이라며 이 같이 내다봤다.

첸 매니저는 "채권 금리 상승은 단지 경제 호조 때문만은 아니며 훨씬 구조적"이라고 진단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